

금융위 부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차관 면담

- '26.4월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응우옌 득 치(Nguyễn Đức Chí)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작년 8월 면담에 이어 7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회하여 한·베 자본시장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권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핵심 협력국*이자 국내 금융회사가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올해 산업은행 하노이지점('26.1월), 기업은행 베트남법인('26.4월) 등 우리 금융회사에 대한 연이은 인가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특히 지난 4월 한-베 정상회담 및 금융위원장의 국민방문 동행 이후 나이스평가정보 베트남 법인(NICE CI)의 베트남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허가('26.5월)되는 등 적극적 금융 외교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은 베트남에게 외국인직접투자 1위, 방문 관광객 2위, 상호교역 3위 국가

** [해외점포 순위] (1위) 미국 68개, (2위) 베트남 54개('26.5월말 기준)

*** [보도참고] 베트남중앙은행, 나이스평가정보 베트남법인 신용정보서비스제공 허가('26.5.22일)

치 차관은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작년부터 가동된 차세대 증권시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올해 4월 베트남 증시의 FTSE 러셀 2차 신흥시장 승격이 확정되어 베트남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올해 증권 분야에 대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상호간의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한국 증시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발전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경험을 베트남에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과 응우옌 득 치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자본시장뿐 아니라 보험·핀테크 등 다른 금융부문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하여 양국 금융산업의 동반성장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바라며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02-2100-2881)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서기관	노소영 (02-2100-2651)

